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에서 Paclitaxel, Cisplatin 복합화학요법의 효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병수*, 김도연, 김지현, 이세훈, 김태유, 허대석, 방영주, 김노경

목적: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에서 paclitaxel, cisplatin 복합화학요법의 효과와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방법: 병리학적으로 비소세포 폐암임이 확인되고,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재발한 환자 중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paclitaxel(145mg/m² iv over 3hr D1), cisplatin(60mg/m² iv D1)을 3주 간격으로 투여하였다.

성적: 2000년 2월과 2001년 2월 사이에 42명의 환자가 등록되었으며, 연령의 중앙값은 53.5세이었다. 조직학적 분류는 선암이 29명, 편평상피세포암이 7명, 대세포암이 3명, 미분화암이 3명이었고, 진단 당시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하였던 환자 36명의 병기는 IIIA 4명, IIIB 13명, IV 19명이었다. 4명의 환자가 1회 투여 후 탈락하여(과민반응: 1, 심한 오심: 3) 38명의 환자에서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였으며, 완전반응은 없었고 부분반응 14명, 반응율은 36.8%이었다. 이중 6명의 환자가 추가로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며 반응의 유지기간은 중앙값이 38.4주이었다. 전체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54.0주이었다. 총 176회 투여하였으며 14회에서 투여가 연기되었고 21회에서 용량감소가 필요하였다. WHO 기준으로 3등급 이상의 독성은 오심/구토가 6회(3.4%), 백혈구감소증 1회(0.6%), 호중구감소증 10회(5.6%)이었다. 2명의 환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이 발생하였고 이중 1명이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3등급 이상의 신경독성은 3명, 탈모는 19명에서 발생하였다. 과민반응으로 1명은 투여를 중지하였고, 다른 1명은 paclitaxel 24시간 주입으로 더 이상의 과민반응은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보아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에서 paclitaxel, cisplatin 복합화학요법은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심각한 독성은 비교적 드물었다.

전신성병기 소세포폐암에서 Ifosfamide, Carboplatin, Epirubicin 3제 복합화학요법의 효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송헌호*, 변재호, 이근석, 이정애, 안진석, 장대영, 박영이, 박영석

배경: 소세포폐암은 항암화학요법에 비교적 잘 반응하는 종양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항암화학요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생존율은 국한성병기(limited disease)의 경우 중앙생존기간이 12-20개월, 전신성병기(extensive disease)의 경우 7-11개월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소세포폐암에서 ifosfamide, carboplatin과, epirubicin은 단독 투여 시에 40% 정도의 반응율을 보였고, 이전의 한 연구에서 전신성병기에서 ifosfamide, carboplatin 복합항암화학요법이 69%의 높은 반응율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저자들은 전신성병기의 소세포폐암에서 ifosfamide, carboplatin에 anthracycline 계열의 약제인 epirubicin을 추가하여 3제 복합항암화학요법의 효과와 독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8년 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한림대학교 의료원에서 조직학적으로 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고, 전신성병기 이면서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은 적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항암화학요법은 ifosfamide 1,500mg/m²를 mesna 900mg/m²과 함께 12시간 지속 정주(제1-3일), carboplatin은 AUC 4.5mg/ml를 목표로 Calvert formula를 통해서 계산된 용량을 1시간 정주(제1일), epirubicin은 60mg/m²를 90분 정주(제1일)하는 것을 4주마다 반복하였다.

결과: 총 19예중 15예에서 효과 판정이 가능했고, 모든 예에서 독성 판정이 가능했다. 중앙 연령은 62세(47-74세)였으며, 남녀비는 15:4였다. ECOG 활동도는 0-1이 13예, 2가 5예, 3이 1예였다. 치료횟수는 중앙값이 4회(1-8회), 추적관찰기간은 중앙값 32주(3-60주)였다. 치료에 대한 반응은 12예에서 보여 반응율은 63.1%였으며 모두 부분관해였다. 관해유지기간, 종양의 진행시간, 생존기간은 각각 중앙값 15주(4-47주), 23주(6-54주), 34주(3-60주)였다.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총 78회의 치료주기 중에 혈액학적독성으로 grade III 이상의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이 각각 4회(5.1%), 3회(3.8%), 3회(3.8%)였고 백혈구 감소증에 의한 감염이 1회 있었으나 치료에 따른 사망은 없었다. 비혈액학적 독성으로는 Grade II 이상의 오심/구토, 구내염이 각각 13예(16.7%), 4예(5.1%)에서 있었다.

결론: 전신성병기의 소세포폐암에서 ifosfamide, carboplatin, epirubicin의 3제 복합화학요법은 비교적 심각한 부작용 없이, 현재 소세포폐암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복합화학요법과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추후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관 추적관찰을 하고 기존 복합항암화학요법과의 임상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